

한·중·일 예술제 '여명' 연출·안무 현대무용가 박진수 씨

“빛고을 광주 나만의 색으로 표현”



현대무용가 박진수씨는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외모를 갖고 있다. 190cm에 달하는 현철한 키와 25년 가까이 길러온 긴 머리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TV 방송에서는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웃음을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1일 만난 그는 패션쇼 무대에 섰던 베레랑담게 카메라 기자의 주문 없이도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모델 포스를 풍겼다.

최근 '한·중·일 예술제' 무대에 오른 무용 '여명'(THE DAWN·예술감독 윤상진)은 그에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오랫동안 광주에서 무용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제자들을 길러온 그는 좀처럼 자신의 색깔을 담은 작품을 무대에

**현대·한국무용, 판소리 등 다양
쇼와 아트 결합한 무용작품 기획
시트콤 출연 등 방송 활동도 활발**

올리지 않았다. '여명'이 그 첫 단추다.

박씨가 연출과 안무를 맡은 '여명'은 완전히 새로운 작품은 아니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했던 '남을 위한 행진곡'을 매만진 작품이지만 박씨만의 '색깔'을 가미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완전히 새로운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제작했던 남의 작품을 손대는 것은 참 어렵다. 작품 의의를 받은 기간이 짧아서 힘도 들었지만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다소 어두운 이미지의 기존 작품과 차별화를 두려고 했고, 현대무용을 비롯해 창과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넣어 '빛'으로 상징되는 광주의 새로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조선대 무용과 출신인 그는 남성 무용수가 없는 이화여대 무용 작품에 출연하는 등 대학시절부터 서울 무대에 꾸준히 서왔다. 육완순씨가 안무한 '지저스 크리스마스 슈퍼스타'에 주인공 유다로 출연하고 한국현대무용단의 '학'의 주역으로 베트남 공연을 다녀오는 등 인지도 받았다.

“밤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면 새벽이었다. 마땅히 잘 곳이 없어 목욕탕에서 3~4시간 자고 일어나 연습에 참여하곤 했다. 수년 동안 객원으로 뛰면서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 지방 출신 무용수라 배척을 받기도 했고 서러움도 있었다. 지금도 환상의 콤비인 어머니를 기쁘게 헤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선화예술학교 강사도 맡는 등 보람도 많았다.”

그는 시트콤 '세친구'와 '21세기 위원회'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숨겨진 끼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외모를 보면 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줄 안다. ‘미국에서 잡들었는데 깨보니 구레더랑께’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다.(웃음)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 사투리를 쓰니 웃음이 터지더라. 난 예능에 출연할 때는 늘 무용 이야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무용을 알리고 싶었으니까. 강호동에게도 현대 무용의 기본 동작을 가르치고 그랬다.”

현재 세종대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중인 박씨는 최근 SJP컴퍼니를 설립했다. 놀라움(Surprise), 연합(Joint)을 뜻하는 단어를 이름에 넣은 건 ‘놀랍고 재미있는 기획을 하되, 무용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무용 이외에도 창극, 뮤지컬 등을 챙겨보고, 전시회도 가보려 애쓴다. 오랫동안 패션쇼 무대에 서고, 패션쇼를 연출하면서는 소적인 감각을 익혔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3년간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음악’과 호흡하는 법을 배웠다. 방송 메카니즘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큰 자산이다. 그는 지금까지 활동을 다양분 삼아 신 개념 무용 공연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순수예술이 대중과 유리되는 게 참 아쉽다. 6개월 동안 피땀 흘리며 준비한 무용 공연이 관객에게 외면받는 건 참 안타깝다. 무용은 미술, 음악 등이 모두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관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는 소적인 느낌과 아트가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무용 공연을 내년에는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내 색깔이 제대로 묻어나는 첫 작품인 셈이다.”

몇년 방송활동이 뜸했던 그는 올해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김희선·이민호 주연의 드라마 '신의'에서는 신비거사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겨울에는 '세친구'를 함께 했던 김성덕 감독이 새롭게 시작하는 MBC시트콤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The square'

피사체에 담은 내면의 갈등

고석민 초대전 8일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오는 8일까지 '제1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고석민씨를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고씨는 이번 전시에서 'The Square'를 주제로 사회 속에 처한 자신의 모습, 내면의 갈등 등을 사진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들은 타인의 시선을 피해 작가가 스스로 거울 뒤에 몸을 숨기고, 거울 안에 투영된 이미지로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에 투영된 도심과 자연 속 익숙한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거울은 주변의 빛과 색을 카멜레온처럼 흡수해 극적인 긴장감과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작가는 “존재의 괴리감을 거울의 양면성으로 나타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군산 출신인 고씨는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서울과 미국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타악, 또 다른 시작

하늘다래 예술단 창단 10주년 공연 오늘 문예회관

타악기로 퍼포먼스를 하는 하늘다래 예술단(대표 허동관)이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을 한다.

'2013 제8회 정기연주회 '비상(飛上)-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하늘다래 예술단은 지난 10년간 발표한 곡 중 대표곡을 무대에 올린다.

'하늘다래'는 '한 울타리'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하늘다래 예술단은 지난 10년간 일곱 차례의 정기연주회와 각종 문화예술

공연, 교육사업, 국내·외 공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했다. 강렬하고 역동적이면서 때로는 감성적인 표현들을 타악기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과 연계돼 있어 입장료는 1000원이다. 문의는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062-226-2032, 하늘다래예술단 062-521-36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37년만에 개정증보판 발간

무등산의 역사와 문화, 지리를 집대성한 기록물 '무등산(저자 박선홍) 개정증보판이 1976년 초판 이래 37년 만에 다시 나왔다. 이번 개정증보판 발간은 지난해 6월 박선홍 선생이 광주문화재단에 도서 '광주일백년(전3권)'(1994년)과 '무등산'(1998년)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기증한 데 따른 후속 작업으로 이뤄졌다.

'무등산'은 저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일일이 찍은 무등산의 동식물, 기후, 전설과 풍속, 유물·유적, 정자와



사할 등 모든 유·무형 자원을 총망라한 무등산 '바이블'로 통한다.

540쪽으로 구성된 개정증보판은 기존 도서의 '개발' 목차 부분에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지정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의 현황 및 지정효과를 새로 담았다. 1942년 무등산 정상에 목탑과 제2수원지의 오염을 막기 위해 사리진 응추계

곡 등 희귀 사진들도 수록해 무등산의 변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정가 3만원. 문의 062-670-7453. /이보람기자 bora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다음달 28일까지

50%

POWER SALE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